

-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
- 오직 여호와와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

제목 : 교회 생활의 유익 성경: 데살로니가전서 1장 1-7절

Tag:

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

2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

3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

4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

5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

6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

7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(살전1:1-7)

1. 은혜와 평강.

-은혜 ; 값 없이 주어지는 것.

-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.

-다만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감사한다.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.

-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화답. 특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는 말은 무관심, 죽음, 유치, 무지, 무례를 뜻한다.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 그것이 복이며 유익이다.

-감사는 내가 무례한 자가 되지 않고, 떠뻗한 자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안겨준다.

-평강;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함을 얻게 됨.

-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파송해서 지켜 주심.

-건강과, 꿈과, 생각과, 행동과, 계획을 지켜주심.

-어떻게든 전진하게 하심.

-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의나 경고를 알아듣고 조심하게 된다는 뜻.

3. 믿음의 역사;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. 매사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니 감사.

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(막9:23)

-여기에서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.

- '내가 잘 아는데, 이 일은 이렇게 하면 잘 된다' 는 믿음이 아님.

-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임을 믿는다는 뜻.

-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이 일은 아직 때가 아니거나,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원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. (교리적으로 여기면 곤란; 그렇게 되면 자신의 게으름과 무지로 인한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게 됨.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비슷함.)

-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은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구분해서 행하라는 뜻.

-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내가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함.
- 또 내가 행해야 할 일인데 차일피일하는 것도 부적절함.
- 무엇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지, 내가 해야 할 일인지 헷갈리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있으며, 또는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.
- 대개는 겸손하고, 욕심이 없는 마음으로,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행하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행할 수 있다.

- 사랑의 수고;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수고로움들. 그 수고로움은 결코 피곤하거나, 억울하거나, 아깝거나, 손해가 되지 않는다.
- 오히려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며, 수고하면서도 만족하게 된다.

- 소망의 인내;소망 때문에 견디게 된다. 소망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. 소망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. 마치 돋보기 초점처럼. 목적지향의 사람이 된다. 소비성 삶이 아니라, 생산적 삶이 되게 한다.

4.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함을 받게 된다.

- 선택받은 자임을 깨닫게 된다.
- 사람은 선택받아야 하는 존재.
- 그래야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게 된다.
-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선택되었다고 깨닫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. 아멘.

<찬양예배>

제목 :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성경: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

Tag: 김찬미, 노을아, 정예흔, 이영운장로 치유.

16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
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(살
후3:16)